

잇따른

'성형경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2014년 4월 15일 (화) | 오후 2시 - 4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 14:20 **개회사 및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최동익 의원

좌 장 :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14:20 - 14:50 **발 제 :** 이상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의사

토 론 :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안상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
범기영 KBS 기자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
구홍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사관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16:00 - 16:30 **전 체 토 론**

공동주최 | 국회의원 남윤인순·최동익

문 의 | 남윤인순 의원실 (2202)
최 동 익 의원실 (2874)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일 시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14:00-16:3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국회의원 남윤인순·최동익

Program

시 간	내 용	참 석 자
14:00-14:20	개회사 및 인사말	남윤인순 의원, 최동익 의원
※ 좌 장 : 허 윤 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 의학교실 교수)		
14:20-14:50	발 제	이상윤_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의사
14:50-16:00		김희영_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안상호_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 범기영_KBS 기자 박영진_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 구홍모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사관 양윤석_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16:00-16:30	전체토론	참석자 모두

Contents

내 용		
개최사	남윤인순_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07
	최동익_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원회)	10
축사	전병헌_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12
	김상희_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14
발제문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이상윤_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	19
토론문	폭풍 같은 성형산업의 틈바구니에서 여성들은 아프다 김희영_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37
	안상호_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	45
	성형외과라는 괴물의 뇌구조 범기영_KBS 보건복지 담당 기자	47
	성형수술 안전성 확보 및 성형광고·성형산업 규제방안 박영진_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	55
	성형수술 후 사망사건 관련 국회정책간담회 토론문 구흥모_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사관	73
	양윤석_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81

개최사

남윤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남윤인순입니다.

최근 성형수술 의료사고나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거대해진 성형산업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목숨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성형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의료법 위반이 관행처럼 굳어졌음에도 처벌 및 단속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성형을 포함한 의료관광 활성화 계획에 앞장서고 있으며 의료영리화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책과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함께 주최해주신 최동익 의원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님과 범기영 KBS 기자님,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님과 안상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님, 구홍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

사관님과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의정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성형산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국정 감사에서 성형광고가 1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하고 전체 의료광고의 1/5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복지부가 현재 널리 고용되고 있는 성형코디네이터의 상담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연간 성형시장 규모가 5조로 전체 세계 시장의 1/4을 차지하고, 인구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도 없어 실태파악조차 못함에도 한국의 성형수술기술이 우수하다며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질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성형실태 및 대안모색을 위한 포럼 - 이야기하자, 압구정역 4번출구’를 개최했었습니다. 포럼의 제목에서 보듯이 압구정역은 세계에 유례없는 ‘성형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술한 성형광고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연애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도 예뻐져야 하니까 성형을 하자고 말하는 광고들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심지어 성형대출까지 쏟아지면서 빚을 내서라도 성형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에 따라 전신마취까지 필요한 성형수술을 특정외모를 비하하면서까지 지나치게 ‘아름다움’만 강조하며 광고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위험할 수 있는 성형수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부추기고 성형의 이점만을 생각하게 하는 왜곡된 인식을 낳고 있는 무분별한 성형광고로 하여금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형광고를 포함한 성형산업의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과 면허대여 같은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양심선언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왜곡된 성형산업의 현주소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이 자리가 다음 과제를 찾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과 노력을 쏟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건강이 넘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회의원 남윤인순

개최사

최동익

국회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의원입니다.

먼저 이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남윤인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토론회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잇따른 성형수술 사고 발생에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은커녕 오히려 성형을 부추기고 성형관광을 장려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의견을 모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성형시장의 규모가 200억달러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성형시장 규모가 45억 달러로, 대한민국은 세계 성형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성형대국’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비정상적인 성형수술 또한 늘어나고 있어 더욱 유감스럽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학 수능시험을 마친 한 여고생이 성형수술을 받다 뇌사상태에 빠졌습니다. 두 달 전에도 서울과 부산에서 30대 여성과 남성이 성형수술 도중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형외과들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고 마취과전문의도 없이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성형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도 정부의 관심은 온통 성형 관광과 의료 상업화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가장 눈에 띄는 광고가 바로 성형외과 광고입니다. 그 중에는 몹시 비인격적이고 감성을 자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들도 많습니다. 교통수단 내부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저 또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하고 관련 법안도 발의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얼마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정화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의 과다경쟁과 상업화로 일부 회원들이 비윤리적이고 불법행위를 했음을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부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 수술대 위에 올랐다가 어이없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열띤 토론으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회의원 최동익

축 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병헌입니다.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서울과 부산에서 30대 여성과 남성이 수술 도중 연달아 숨졌고, 지난해 수능시험을 마치고 성형수술을 받은 여고생은 석 달째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 성형시장의 25%를 차지하는 ‘성형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형을 부추기고 성형관광을 장려하면서도 환자의 안전 문제는 도외시한 탓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 명당 성형수술 건수는 13.5건 수준으로 단연 1위입니다. 더불어 발전한 한국 의사들의 성형시술 능력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국익 창출에도 한 몫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열 경쟁과 상업화는 과잉 성형을 낳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형의 판단은 코디네이터들이 맡아서 수술비를 더 받아내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불필요한 수술까지도 권유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형수술을 행하는 이들의 지식 및 기술 수준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행함에 있어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비의료인이 수술을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슬로건 아래 성형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토론회는 성형수술의 의료행위에 대한 올바른 의료 규제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상품화 되어가고 있는 성형수술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 불법 의료광고 등 성형수술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져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동익 의원님과 남윤인순 의원님을 비롯하여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전병헌

축 사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입니다.

올 3월에도 성형수술로 인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양악수술 후 30대 남성이 숨졌고, 3월6일 성형수술을 받던 30대 여성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앞서서 2월에는 성형수술 중 뇌사에 빠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도하게 확산되어온 성형의료가 얼마나 위험한 지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절하게 토론회를 개최하신 남윤인순 의원님과 최동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으신 아주대 의과대 허윤정 교수님, 발제하시는 건강과 대안 이상운 책임연구원님,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여성건강팀장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상호 정책이사님, KBS 범기영 기자님,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윤리이사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구흥모 선임조사관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윤석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꼭 참석하셔야 하는 분들이 모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모’평가가 흔한 인사말이 대신할 정도로 외모 감시 사회에 살고 있

습니다. 그래서인지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없어진 듯합니다. 최근에 19세-49세 수도권 거주자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여성의 19.7%, 남성 5.3%가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쉽게 성형 수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성형을 부추기는 환경과 연관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의 건강이나 안전보다는 이윤 논리에 움직이는 한국의 성형산업은 대중교통과 온라인, 잡지 등에 교묘하고 자극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성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지하철 성형 광고 비중을 전체 광고의 2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획일화된 외모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성형광고가 개인의 일상이나 인식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부 성형 의료기관에서는 광고에는 마치 ‘유명 의사’를 만든 뒤 직접 수술하는 것처럼 권유하지만 실제로 수면마취제 투여나 전신마취 뒤 ‘새도 닥터’로 불리는 다른 의사가 대리 수술하는 병폐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성형수술 만큼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수술 후 후유증 등 잠재적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인정했듯이 대리수술이나 면허 대여 등 불법의료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외에도 성형 진료 중 의료적 치료 외에 이루어지는 미용관련 시술은 어디까지 인정해 줘야 하는지, 성형 시술 및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 피해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성형을 부추기는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4월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상희

발제문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이상윤(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의사)

한국의 미용성형 실태

ECONOMIST지는 2013년 1월 기사에서 한국이 미용성형시술/수술 1위인 국가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가 매년 추계하는 미용성형시술/수술 통계를 각 나라의 인구수로 보정한 결과다. 국제미용성형외과의사협회가 추계한 2011년 미용성형시술/수술 건수로만 따지면, 한국은 미국, 브라질, 중국,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에 이어 7위다. 하지만 이를 각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면 한국은 인구 1만명당 6.5건으로 단연 1위다(그림 1 참조).

이 통계는 실제 시술/수술 건수를 모두 집계한 것은 아니고 매년 각국의 성형 외과의사들이 보고한 사례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추정한 것이다. 해당 국가의 국민 기준이 아니라 해당 국가 국민이 아니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시술/수술을 받은 이들은 그 국가 통계로 잡힌다. 성형외과 의사가 행한 시술/수술만 사례만 보고되니 일반의나 피부과 의사 등 다른 전공자들이 행한 시술/수술은 누락되어 실제 행해진 성형시술/수술건수보다는 과소추계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신뢰성 있는 통계인 것은 사실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비수술적 시술은 보톡스 주사, 수술은 지방 성형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한국의 다빈도 성형 시술/수술건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술/수술들은 주로 노화된 피부 등을 회춘시키거나 스테레오타입화된 형태의 외모를 갖추기 위한 것들이다(표 1 참조).

표 6 한국의 다빈도 성형시술/수술건수(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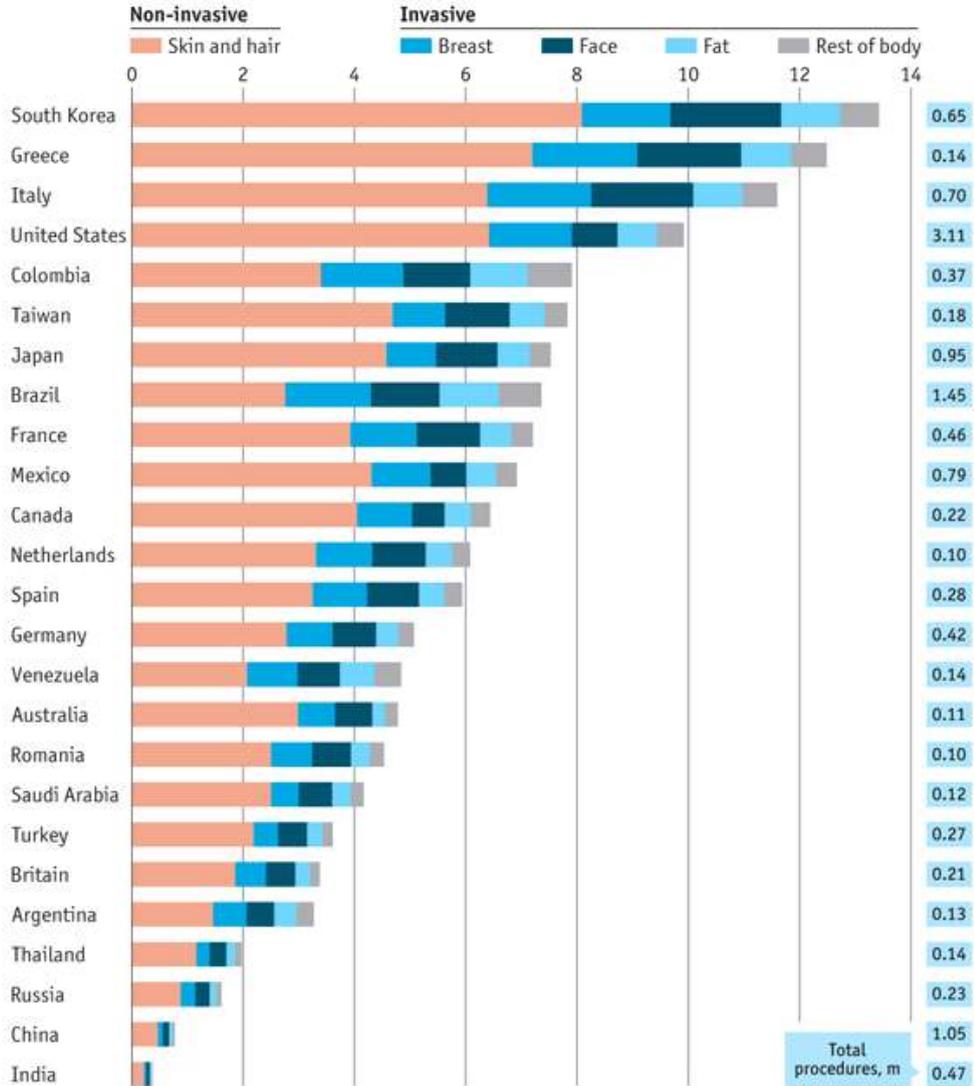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비수술적 시술		수술	
	1위	보톡스 주사	145,688	지방 성형수술
2위	하이알유로닉산 주사	90,133	유방 확대수술	35,325
3위	레이저 제모	52,825	코 성형수술	31,863
4위	자가 지방 주사	23,175	쌍꺼풀 수술	29,050
5위	IPL 레이저 시술	22,225	복부 성형수술	19,800

※ 자료 :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2012.

Plastic surgery

Procedures per 1,000 population, 2011



Sources: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UN; The Economist

Economist.com/graphicdetail

그림 18 각국의 인구 1000명당 성형시술 및 시술건수(2011년)

※ 자료 : ECONOMIST, International Society of Aesthetic Plastic Surgeons

한국의 미용성형시술/수술은 이미 국제적인 것이 되었다. 인근 국가에서 시술/

수술 받기 위해 의료 관광을 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른 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이들이 미용성형 시술/수술을 받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정치인도 피부 관리는 기본이 되었다.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면접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취업 준비로 이러한 시술/수술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

비수술적인 미용성형시술이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미용성형은 수술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다. 미용성형수술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 마취기술, 수술기술, 통증관리기술 등이 발전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출혈, 감염, 혈전증 등의 위험뿐 아니라 사망의 위험도 있다.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성형술을 받은 이들이 우울증이나 자살 위험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존재한다. 물론 이는 미용성형수술의 직접적 부작용은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여성의 진정한 요구에 미용성형수술이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간접적 지표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 및 위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용성형수술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상담 및 신청을 하는 건수가 유일하게 집계되고 있는 공식 통계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의료 사고 및 분쟁이 당사자와 의료기관간의 ‘합의’로 종료됨을 고려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집계된 미용성형수술 분쟁 사례는 극히 일부일 가능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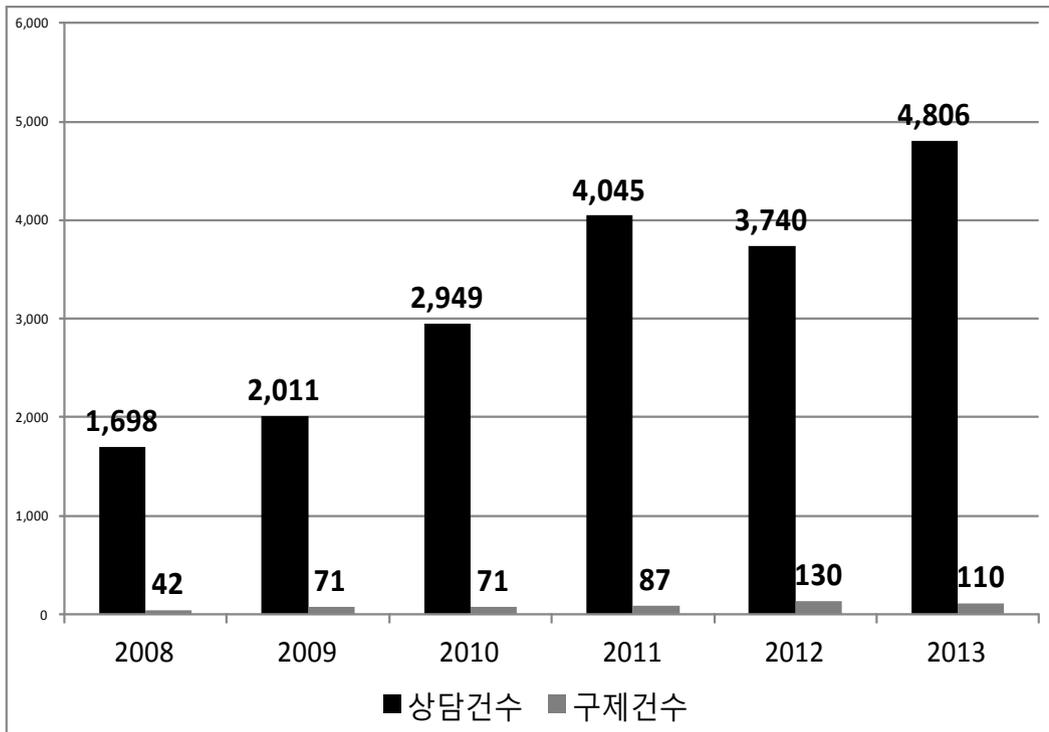


그림 19 성형수술 피해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및 피해구제 처리 건수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의 분류와 원인

의료 수술 영역에서 특정 부작용은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가령 마취제 거부 반응으로 인한 피해 등은 사전에 그것을 인지하고 예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다수의 수술 부작용은 의지가 있고 노력한다면 예방가능하다. 미용성형수술도 '의료' 영역이라면 무엇보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작용 및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료 영역에서의 수술 부작용 및 위험

예방의 차원과 미용성형수술이 가지는 독특한 위치, 다시 말해 ‘의료’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일반 ‘상품’의 영역이기도하다는 특성에서 유래한 ‘시장’의 차원이 있기에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미용성형수술의 부작용과 위험의 원인을 살펴보자

미용성형수술도 의료 영역의 수술이므로 수술 부작용 발생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수술하지 않아도 될 환자가 수술할 경우, 둘째, 수술하는 사람의 지식과 기술에 문제가 있을 경우(이는 명백한 의료 과실이다), 셋째, 수술하는 방식, 사후 관리 등의 과정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경우, 넷째, 수술 도중 혹은 직후에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등이다.

미용성형수술이 다른 의료 영역의 수술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위에서 언급한 수술 부작용의 원인 중 첫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의료 영역에서 본인이 원한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상황은 상식적이지 않다. 전통적인 외과 의사들은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의학적으로 면밀히 평가하고, 수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수술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이러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Do not harm!)”는 것이다. 환자의 몸과 건강, 생명과 관련된 결정이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미용성형 영역에서 수술 여부의 결정에 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많은 미용성형 의료기관에서 이른 바 ‘코디네이터’ 혹은 ‘상담실장’이라 불리는 이들이 카운터에서부터 환자를 맞이하여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들이 수술의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 줄 능력도, 의지도 없음은 명백하다. 환자의 경제적 배경을 예측하고 이에 맞춤형 미용성형수

술을 권하는 기법만이 발달할 뿐이다. 수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꼭 확인되어야 할 환자들의 기본 건강 상태나 질병력 등은 무시되기 마련이고, 과도한 미사여구와 홍보로 환자가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미용성형 수술을 행하는 이들의 지식 및 기술 수준도 문제가 있다. 미용성형수술을 행함에 있어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기에 어떤 의사라도 혼자서 기술을 익혀 이 영역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이제는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비의료인이 이러한 수술을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술은 어차피 손재주가 중요하지 자격증이 뭐가 중요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수술의 질 관리와 부작용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 과정과 지속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 모든 외과 의사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최소 4년 이상의 훈련 과정을 거치며 의료의 표준을 습득하고 내면화한다. 그리고 이들은 학회나 협회 등에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는다. 등록된 의사들의 기술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고 징계하는 것도 많은 부분 집단적인 자가 규제에 맡겨진다. 각 전공 영역별로 수술의 부위와 종류를 정해 각기 다른 전공 영역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불문율을 정해 운영하는 것도 넓은 의미의 자가 규제에 해당한다.

물론 현재 이러한 차이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성형외과학회나 성형외과의사협회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 성형외과학회나 성형외과의사협회 등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실한 대리자로서 역할을 할 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승인도 있을 것이다.

수술 전 준비, 수술 과정, 수술 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적절한 질 관리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네트워크 의원 등을 중심으로 ‘공장’식 성형수술이 횡행하여 이러한 질 관리가 더욱 어

려워지고 있다. 의료의 질 관리는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 영역의 특수성상 비용을 들여 질 관리를 한다고 해서 수익 증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다보니 수익 추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는 의료기관은 자연히 질 관리에 소홀하게 되고,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에만 매달리게 된다.

그 결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이른 바 ‘공장식’ 미용성형수술 기관의 탄생이다. 실질적인 의료기관 소유주는 투기 자본 혹은 ‘의인화(擬人化)’된 자본이면서, 이들이 의사들을 고용하여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듯이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의사들이 휴식시간도 없이 환자들 수술에 매달리기 일쑤고, 여러 수술장을 동시에 열어 놓고 메뚜기 뛰듯이 이리저리 수술방을 돌아다니면서 수술 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비용 절감을 위하여 간호사, 마취과 의사 들도 제대로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하더라도 미숙련 인력을 고용하고, 수술 재료 등도 저질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질 관리 노력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면, 안전과 응급한 상황을 대비한 시설 및 인력 투자는 당연히 뒷전이 된다. 이에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의원도 엄연히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응급한 의료 상황에 대처하는 인적, 물적 인프라 자체가 취약하게 되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미용성형수술이 일반 ‘상품’ 및 ‘시장’이라는 차원에서도 부적절하게 거래되어 부작용 및 위험을 높이는 측면도 존재한다. 미용성형수술 시장에서 시장이 작동하여 수술의 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현명한 소비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용성형수술 수요자들은 이러한 정보 접근력이 제한되어 있고,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능력도 떨어

어진다. 다시 말해 어느 의료기관의 미용성형수술 ‘상품’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비용-효과적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의료’ 영역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서비스 이용자는 시장에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힘들다. ‘현명한 소비자’는 서비스의 효용과 질을 평가하고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구매한다. 하지만 미용성형 서비스 이용자들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용성형 서비스의 효용과 질을 평가하기 힘들다. 그래서 오직 가격 요소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 쉽다. 하지만 사실 서비스 가격도 서로 비교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가격 정보도 입소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무형의 광고나 입소문, 인터넷 커뮤니티의 평판 등에 의존해 상품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 되고 있다.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이 커져가는 근본적 이유

앞서 미시적 측면에서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이 커져가는 이유를 분류해 보았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한 데에는 우리 사회의 거시적 구조나 제도 문제가 놓여 있다. 이는 환자, 의사, 자본(산업), 정부 등 행위자들의 차원에서나, 미용성형산업에 대한 규제, 상업적 미디어 규제 등 제도의 차원에서나, 가부장제와 여성/남성의 ‘몸’에 대한 물신화 경향 등 문화/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한 문제다. 하지만 이는 발제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일단 의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거시적, 구조적 원인 분석을 해보자.

첫째, 미용성형 의료기관의 경쟁이 너무 심한 것이 문제다. 의료를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미용성형산업도 시장의 '순기능'에 의해 자율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장론자에게 이 말은 낯설겠지만, 실제로 현재 일어나는 상당수 폐하는 과도한 미용성형 의료기관의 경쟁 때문이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수요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는 만들어진 것이고, 가격 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미용성형 수술 건수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는 과다 수요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용성형수술의 과잉 공급과 그로 인한 과잉 경쟁 문제가 더 근본적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과 탈법, 비윤리적, 위험한 행위들이 늘어간다. 경쟁에 살아남고자 발버둥치는 이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윤리나 의료윤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비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더불어, 이를 통한 이윤 창출 과정이 점점 더 기업화되고 공장화된다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그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극소수의 금융자본, 투기자본, 일부 의료인들로 한정되고 있다.

상황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용성형수술 시장의 경쟁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규제 완화'라는 미명 하에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 특히 미용성형 영역의 경우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슬로건 아래, 미용성형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장을 더 키우기 위해 관련 규제를 더 풀고 경쟁을 더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내려가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진행되고 있는 의료관광 프로젝트에는 거의 대부분 미용성형 관련 사업이 약방의 감초처럼 포함되어 있다. '한류'에 매혹되어 한국으로 성형 관광을 오는 중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외화 벌이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다.

미용성형수술을 매개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여 외화 벌이를 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산업계의 '경제중심적' 사고에 대한 가치 평가는 차치하자. 그러나 질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 압박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이 과연 향후 얼마나 더 미용성형 의료관광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사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요란하게 떠들며 미용성형 관광객을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도 외국 미용성형 관광객의 규모는 1년에 1만5천-2만 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연 이러한 '장미빛 전망'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미용성형수술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업계의 민원만 들어주는 것이 단순히 의료관광의 실패라는 '경제 정책'의 실패 차원에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 영역의 규제 완화와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방기는 국민 전체의 미용성형 부작용 및 위험 예방 관리 정책에도 영향을 끼치기에 더욱 큰 문제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갖 특혜를 받아 자본과 규모가 커진 미용성형산업이 당연히 더 큰 국민경제 시장을 넘보며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미용성형수술 부작용 및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1차적 정책 방향은 미용성형수술도 '의료'이니만큼, '전통적' 의료 규제가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여기에 더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사회적 개입을 강화하는 방식의 새로운 의료 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기존 법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이 필요하

다. 현행법상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법을 어기면 면허자격이 정지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용성형수술/시술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코디네이터 혹은 상담실장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설명 및 수술 동의서 작성 여부도 포함된다¹⁾).

둘째, 성형외과학회 등이 중심이 되어 미용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조건을 정하고, 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이들만이 미용성형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절한 교육 훈련 기간 및 내용을 이수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와 같은 자격 인증을 받은 의사를 중심으로 협회 등을 구성하게 하여 협회가 자체적으로 미용성형수술/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감시, 감독하게 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상업화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이러한 전통적 의료인 자가 규제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 규제의 측면에서 서비스의 절대 양을 조절할 수 있을 가능성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셋째, 확장된 의미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미용성형수술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환자 본인이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진 후에만 미용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고안해 볼 수 있다. 성형외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여성주의 상담가 등으로 이루어진 상담자 풀을 구성하고, 미용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이는 이들로부터 해당

1) 현재 국회에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인의 설명 의무’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현행 의료법 체계상으로도 수술의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의무는 의료인이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를 보다 분명히 의료인의 의무로 명시하고, 비의료인이 이를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방향의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수술이 가질 수 있는 효과, 이점, 부작용, 단점 등에 대해 가감 없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술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 점, 수술이 아니라 다른 측면의 노력으로 환자의 욕구 충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개월 정도 숙고할 시간을 가지고 수술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필요 없는 수술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독일 등에서 추진 중인 ‘미성년자 미용성형수술 금지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²⁾.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 미용성형 영역 뿐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업적 사이버 치료에 대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사적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한국적 현실 속에서 관련 규제가 전무하다보니 미용성형 영역뿐 아니라 비만 치료 영역 등에서 근거 없는 비의학적 치료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신의료기술’에도 해당되지 않고, 건강보험법상 ‘법정 비급여’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술이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술들은 대부분 의학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미용성형수술은 ‘의료’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품’이 되어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미용성형의 이러한 ‘상품성’을 거세해야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미용성형이 빠르게 상품화되어가는 현실에서 미용성형수술의 상품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의료’ 측면의 규제만으로는 현재 고도로 상업화되어 가는 미용성형산업의 부작용을

2) 현재 국회에는 이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성년자의 미용성형수술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미성년자는 신체상의 문제도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고, 현재도 미성년자의 미용성형 수술은 대부분 부모 등 대리인의 권유와 묵인 등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취지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도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 이러한 법 개정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적절히 규제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이 어느 정도 상품이 되어 있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한 시장’, ‘책임성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처방도 동시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능한 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미용성형수술 기관이 자신의 서비스 질과 관련된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보고하게 하고, 이 제3의 기관은 이를 평가하고 인증하여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의료기관 서비스 인증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구성해 볼 수도 있다³⁾.

둘째, ‘불법 의료광고’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광고가 버젓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철저히 규제해야 하고, 현재의 의료 광고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특정 내용,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특정 방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만 금지하는 형태다. 그리고 특정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인 중앙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단속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인 중앙회에서 이루어지는 심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므로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미용성형과 관련된 의료 광고는 그 폐해를 고려하여 더욱 엄격히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⁴⁾.

3) 최근 언론에 성형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기를 갖춘 의료기관이 적다는 통계가 발표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와 관련된 것은 법적으로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 보다는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만하다.

4) 현재 국회에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광고의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 경우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제27조 제3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셋째,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가격 덤핑, 그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를 규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용성형 서비스 공급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격 덤핑이다. 덤핑은 기관간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면서 네트워크화된 기관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가격이 싸지면 소비자는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의료 영역에서 지나친 가격 인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공정한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기관의 감시가 필요하고, 위에서 언급한 정보 공개 제도와 더불어 미용성형수술/시술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 표준 계약서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물론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 규제가 필요하다.

한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중 규제인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은 분명 현행 제도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현행 심의 제도 자체가 문제인 점을 고려하면 미용성형수술 광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남윤인순 의원 등이 발의 예정인 성형 관련 의료 광고는 특정 매체로는 아예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론문

폭풍 같은 성형산업의 틈바구니에서 여성들은 아프다

김희영(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

주걱턱, 돌출된 광대뼈, 작은 눈, 작은 가슴, 다크서클, 통통한 팔다리... 모두 바꿔 주겠다고 해요. 이것을 보고 누군가는 수술을 결심할 것이고, 누군가는 자기혐오를 더 키울 것이며, 누군가는 다른 이의 외모를 이 잣대로 평가하고 있을 거예요. 성형 열풍, 성형 광고 속에서 상처받을 수많은 사람들. 성형 광고를 보며 이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똥똥해서 죄송합니까?>, 54p,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들은 왜, 성형 하는가

작년 민우회에서는 책 <똥똥해서 죄송합니까>를 발간했다. 성형, 다이어트를 경험한 24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언젠가부터 성형,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가 무섭게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한 때는 특별한 범주의 사람들만의 주제라고 여겨졌지만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볼 법한 이슈가 되었음을 체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어제도 횡단보도에서 만난 여고생들의 대화. “살 빼고 성형하고 싶다”) 성형이 ‘일상화’된 한국 사회에서 성형과 다이어트 등의 외모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여성들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집단으로 욕을 먹기도 한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언사들은 외모 관리를 요구하는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외모관리를 실천하는 여성들을 비

난하거나 혼계하기 때문이다.(내면의 아름다움을 찾으라 vs 성형괴물)

“살쪘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야 상처 받아서 뺀다, 뭐 이런 거요. / 모든 사람이 쳐다봐요. 여자 몸을…여자도 여자 몸 봐요 /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빼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옷 살 때예요. / 살지면 환자가 의료적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마른 체형의 간호사를 원해요 / 더 이상 스펙으로 채울 수 없는 걸 다이어트로 채운 것 같아요”(성형,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여성 인터뷰 중, <똥똥해서 죄송합니까?>)

<똥똥해서 죄송합니까>는 여성들의 외모관리 실천의 배경이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 프리사이즈가 보편화 되고 있는 의류시장, 자기관리의 척도로 몸을 보고 있는 노동시장, 매일 보는 미디어 속의 성형 조장 광고, 외모에 대한 온갖 일상적인 말들과 사회적 불이익, 몸에 대한 혐오의 대물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사회에서 폭식증, 거식증, 자기혐오와 불안, 우울증을 겪는 여성들은 아프다. 외모가 권력이자 전부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는 여성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가’ 불행한 이 분위기는 누가, 왜 양산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누가 이익 보는가.

대중교통, 영화관, 쇼핑몰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만나는 성형광고만 떠올려도 답은 쉽게 나온다.

성형광고의 ‘공해’

아래 사진들은 최근 민우회에서 진행한 안티 성형광고 액션에서 시민들에게 모은 최악의 광고들이다. 조금만 낫설게 보면 이 광고들은 모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외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전 국민이 성형할 수는 없다. 엄마의 조건에도 외모가 있다고 말하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아



도 살을 빼지 않는 것을 게으름으로 여기는, 외모 때문에 연애할 수 없다는 식의 위 광고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유통 시키고 있는가.

턱을 '깎으라며' 얼굴을 감자로 묘사한 광고의 경우, 인권 침해를 넘어서 인명 경시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이다.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외모차별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을 강화시키는 성형광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얼마 전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뇌사상태에 빠져 두 달째 의식 불명 상태인 여고생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해자는 지난해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받았고, 수술과정에서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이후에도 대기 중인 보호자에게 제대로 된 언질도 없이 인근 응급실로 피해자를 이송했다. 이후 피해자 측이 수술 상황을 설명해줄 것을 병원에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개월이란 시간을 무책임으로 일관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도 신사역과 강남역에서는 지하철 출구 안내 방송과 함께 그 성형외과의 광고가 방송되고 있었다. 최소한 이런 논란이 있는 병원에 대한 광고가 대중교통에 아무런 제지 없이 게재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병원이 정상운영 되는 한 2차, 3차 피해를 낳을 우려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민우회는 메트로와 서울시에 광고 게재 중단을 요청

하였다. 서울시에는 성형외과 난립의 문제, 부작용 고지 미비 문제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한 바 있다. 결국 메트로와 서울시는 이 광고를 중단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향후 “버스, 지하철의 성형광고 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하철 성형광고 비중을 역·차량별 20% 이내로 제한 / 성형 전후 비교사진 금지 / 성형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문구 사용할 수 없도록 지하철공사와 광고 대행사에 통보(ex.티 나지 않게, 예뻐져라) / 지하철 내부 의료광고에 대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의료법 적용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건의(현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사전심의 대상으로 되어 시민정서 반하는 광고 규제 가능) / 음성 성형광고 음량 제한 70dB에서 55dB 로 기준 강화 / 초·중·고교 주변 정류소 성형광고 금지”

서울시의 대책은 성형광고에 대한 사회적인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긍정적인 방침으로 보인다. 작년과 올해 민우회에서 진행한 안티성형광고와 관련한 활동들에 특히 여성들의 많은 환호와 지지가 있었다. 혹자는 여성들이 성형을 하기 때문에 안티 성형광고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느냐고 묻기도 하지만 외모관리를 실천한다고 해서 성형광고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과 다이어트 광고를 봐야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오히려 다이어트 관련 광고들이 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기도 하지 않는가. 우리는 소비자 정체성만 갖고 있지 않다.)

렛미인, 다이어트워 ...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혐오들



미디어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TV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성형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유머 소재 정도로 매일 같이 노출되고 있다.(어머니가 보톡스 시술로 턱에 감각이 없어 물이 질질 샌다는 농담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보라-kbs 해피투게더, 337회) 이를 넘어서 한 방송에서는 전신성형을 해주기도 한다. “지원자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메이크 오버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스토리온의 프로그램, “렛미인”은 현재 시즌 4가 방송 예정이다. 렛미인은 시즌 3의 1회부터 15회까지 등장한 19명의 출연자 중에 14명의 출연자에게 양악수술을 시행했다. 꼭 치아나 하관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양악수술을 해서 불필요한 전신성형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았다. 렛미인에는 많은 오디션 지원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녀들은 이렇게 불린다.

“치아반잇몸반 반반녀, 무턱녀, 튼살녀, 비만은둔녀, 흡입녀, 턱사마녀, 주걱턱녀, 턱톡튀녀, 프랑켄슈타인녀, 반전녀, 가슴4개녀, 절벽녀, 외계인녀…”

과연 렛미인이 재생산 시키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몸에 대한 혐오가 정말 여성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가. 렛미인 시즌 4의 홈페이지의 지원자 신청 게시판에는 거의 천 여 건의 글들이 있는데 외모로 인한 고통이 ‘경쟁’되고 있었

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수술 받고 싶다, 삶에 의욕이 없다, 당장 자살하고 싶다, 여자가 되고 싶다, 당당하게 친척 모이는 데 가고 싶다, 제대로 웃고 싶다, 놀림 받는 내가 싫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평범해지고 싶다,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옥 같다’... 등 의식주 등 일상생활이 불편한 지원자들에게 재건 성형을 통해 복귀를 돕는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대부분이 미용 전신 성형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외모로 인한 불편함의 문제는 대부분 사회적 시선과 관련되어 있다. 사연의 대체적인 내용이 “밖에 나가고 싶다”는 글들이 이를 보여준다. 외모로 인해 이토록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선행 되어야 하는지를 드러낸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모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외모로 인해 차별과 혐오가 없는 사회로의 이행이다.

지난 해 한 케이블 방송에서 ‘초고도 비만녀’라는 타이틀로 방송에 출연해 1년 만에 몸무게를 70kg 이상 감량해 화제가 되었던 20대 여성이 돌연 사망했다. 그녀는 위에 밴드를 감아 식욕을 억제시키는 위밴드 수술을 받았다. 방송 출연 후 2년간 주사와 약 복용을 했다고 한다. 유가족은 이 여성이 방송 출연 직전 110kg이었는데 제작진이 다이어트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130kg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였다. 방송이 성형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비포 에프터라는 구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미디어는 몇몇 사람들의 인생을 역전시켜준다는 명분으로 더 크고 강한 영향력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물론, 몇몇 사람들의 인생을 역전시키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의료와 연결되었을 경우의 심각성은 더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린 문제다. 현재 미디어는 성형수술이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위험이나 부작용이 없는 인생 역전 방법이라며 시청자들을 호도하고 있다. 마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외모였고, 그것만 ‘해결’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며 말이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의료법 56조에 의한 의료광고 금지 내용을 보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성형광고는 의료법56조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2항을 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를 부추기고 여성에게는 외모가 전부라는 식의 성차별적 광고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지금,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의료광고 심의를 대한의사협회에서 하고 있다. 의료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는지 여부를 이해 당사자인 의사가 판단하는 시스템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고의 공익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 광고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시민들의 몫이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법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대책이 없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또한 의료광고지만 성형광고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는 과다 경쟁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성형을 권유하고 있고 자극성, 선정성, 차별적인 내용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성형광고에 대해서는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성형 대중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 제정과 더불어 법의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 및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2012년 영국의 경우, 성형외과의사들이 나서서 미용성형 광고의 전면규제를 요구했다. 영국의 성형외과의사협회는 "성형으로 행복해진다는 광고는 거짓 희

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러한 모습은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점차 의료 상업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이런 내부에서의 자성의 목소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성형외과 난립의 문제, 성형으로 인한 사망, 의료 사고, 성형광고 문제 등이 꾸준히 언론에 보도됨으로서 성형외과 의사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경우 성형을 조장하다 못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성형 프로그램의 경우 폐지가 필요하며, 일상적으로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성형 언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앞으로도 민우회에서는 비대해져 가는 성형 산업에 제도 걸기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몸 에 대한 혐오를 걷어내고 본연의 건강권을 되찾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이 문제를 ‘성형공화국’이라는 국가적 명예 실추의 문제로 접근하면 곤란하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역할의 방기로 인해 심화된 문제인 만큼 성형 이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이윤창출 도구로 전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게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토론회

안상호(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정책이사)

성형외과라는 괴물의 뇌구조

범기영(KBS 보건복지 담당기자)

발단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이었다. 후에 강남에 있는 유명 성형외과와 고용 의사가 맺은 근로계약서로 밝혀진 문서는 충격적이었다. 사실 성형외과가 고도로 영리화된 거야 공지의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무리한 수술, 의학적으로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 채 벌어지는 수술이나 대리 수술에 대한 소문은 있어왔다. 그 중 일부는 잇단 의료 사고로 인한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었다.

1. 대리수술

계약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성과급 계산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해두었다.

“을을 고객이 집도의로 알고 실제 수술도 을이 시행한 경우 5%”

“을을 고객이 집도의로 알고 있으나 집도를 실제 을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제3자를 고객이 집도의로 알고 있으나 집도는 실제 을이 시행한 경우 2%”

이 조항은 환자가 알고 있는 집도의, 즉 병원에 가서 상담하고 수술을 결정했던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리 수술이 어쩔 수 없이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 매우 조직적으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차원의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을 증언하는 조항이다. 그에 따른 이윤 배분 조건까지 명시한 이 조항부터가 충격적이다.

취재 과정에서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계약 당사자 의사를 만났다. 해당 의사는 이렇게 증언했다.

“환자가 잠들기 전까지는 상담한 의사가 집도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건가요?”

“연기를 한다면 연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면 마취제를 더 쓰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수술 자체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으로 문제 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대리 수술하는 자가 의사 면허가 없는 자라면 모를까(그런 증언도 있었지만 문서 등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보도할 수는 없었다) 집도 의사가 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취재팀 판단이었다. 하지만 다음 증언은 상황을 다르게 만든다.

2. 수술 중 환자 방치

“수술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지거나 수술방을 비우거나 하는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었죠. 한 명 수술하는 중에도 상담이 여러 차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마취제 투여량이 늘 수밖에 없겠습니다. 필요한 시간보다 오래 재워야 할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환자가 알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요는 수술 중에 환자를 마취 상태로 방치해두고 의사는 나와서 다른 환자를 본다는 얘기다. 수술방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남아서 환자 상태를 본다고는 하지만 책임있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다. 사고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이다.

게다가 마취제를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할 여지도 계속 커진다. 수술 시간은 자

꾸 길어질 수 있고 환자가 상황을 알아채게 해서는 안 된다.

KBS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병원장이 고용 의사들에게 보낸 지시사항도 확보했다. 그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다.

“상담 및 치료로 중도에 나오시는 경우는 각 수술장 수술팀 담당자가 TIMER를 PAUSE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술 중에 환자를 방치하고라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다른 환자를 보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릴레이 수술

성형외과에는 1년에 두 번 성수기가 온다. 여름과 겨울. 방학이 있고 졸업 시즌이 있는 때다. 이 시기에 환자가 많이 몰리는 대형 성형외과, 유명 성형외과에서는 거의 공장식 수술이 계속된다. 다시 의사의 증언.

“수술 종류에 따라 모르겠지만 너댓 명 수술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성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개, 많게는 열몇 개씩 수술을 해야 하고 중간중간 상담도 해야 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다른 의사는 이렇게 말한다.

“수술을 하다가 시간이 쫓겨서 결과가 안 나오는데도 그냥 닫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6시가 됐는데 다음 수술이 서너 개 밀려 있고 밖에서는 소리칩니다. 그러면 쌍꺼풀이 짹짹하고 코가 비뚤어졌는데도 그냥 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책임, 그 양심적인 책임이나 고객에게 받는 비난도 다 그 의사가 책임져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바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쫓겨가며 일할까. 물론 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실적 경쟁을 유도한 정

항도 충분히 있다. 계속 언급하고 있는 병원장 지시사항 문건은 매월 실적을 정리해서 의사들에게 공개한 부분이 있다. 매달 의사 한 사람이 상담을 몇 건 했는지, 그 중에 몇 %가 수술로 이어졌는지를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7일까지 실적이 있다. 그 내역을 보면 의사 한 사람이 많게는 300건까지 상담을 했다. 수술 성사율은 대개 50%대였다. 의사들 고용 조건은 주6일 근무. 근무일은 23일이다. 하루 13건씩 상담을 하고 7건꼴로 수술을 했다. 문서상 성수기에 가장 많이 수술한 경우다. 대리수술 등 문제가 반영된 수치인지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적지 않은 수준인 점은 분명하다.

4. 수술 감시

이쯤 되면 이게 도대체 의사들, 학부를 졸업하고 힘들게 수련 기간을 거쳐 전문의 자격증을 따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다. 고도로 영리화, 의료자본이 된 병원은 이렇게 했다.

“매번, 모든 수술방에 타이머가 있고요. 간호조무사가 수술 시작하면 타이머 켜고 끝나면 끄죠. 그 시간이 칠판에 적힙니다. 관리감독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석대로 꼼꼼하게 하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당하기 쉽죠.”

이 황당한 증언은 문서로도 확인된다. 앞에서 언급한 원장 지시사항 문건이다. “모든 수술장에 OP TIMER가 붙어 있습니다. 사옥에서도 자동으로 전산과 연계되어 이를 체크할 것입니다. 이에 내일부터 모든 수술시간을 수술팀장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식적인 수술시간이 발생할 경우 제가 직접 관리하도록 할 것이므로 모든 원장단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에는 각 수술별로 소요 시간을 일일이 적시해놓은 대목도 있다. 코 30분 이마 30분 지방주입은 부위당 10에서 15분. 이 시간을 지키는지 수술장마

다 타이머를 설치해 측정하고 원장은 사옥에서 실시간 확인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의사들은 실적 압박 속에 서둘러 수술을 해야 했다.

5. 비의료인이 수술 결정

계약서를 보며 취재진이 가장 당혹스러워한 대목이다.

“모든 진료시 을은 상담실장 혹은 상담 코디네이터의 예진 결과, 즉 상담실장 혹은 상담 코디네이터가 고객에게 권한 수술(시술)명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료인이 아닌 상담실장이 정한 수술명대로 진행하라는 요구다. 이 요구를 의사인 병원장이 했고 역시 전문의인 고용의사가 받아들여 서명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병원 현장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을까? 고용 의사 증언이다.

“물론 100% 상담실장 지시를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의사가 느끼기에 외로운 생활을 만들죠 조직 내에서. 환자를 안 준다든지 상담을 안 주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수술하고 일을 하는데 나만 앉아서 놀게 되는 거죠. 그런 생활을 1,2주 하게 되면 따를 수밖에 없죠. 나가든지 따르든지 둘 중 하나인데 나가게 되면 계약서에서 보듯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따를 수밖에 없죠.”

6. 면허 대여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한 사람이 병원을 한 곳만 개설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하지만 영리화된 성형외과는 무한 증식을 시도한다.

다음은 근로계약서 조항.

“갑이 운영하는 병원이 한 곳이 아니라 다수인 관계로 (중략) 따라서 을은 근무 지점을 선택하거나 변경 요청할 수 없다.”

한 사람 명의로는 여러 병원을 열 수 없으니 차명 병원을 열어야 한다. 따라서 면허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근로 계약서에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항이 있었다.

“명의 신탁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다. 명의신탁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명의 신탁으로 인하여 을에게 부과되는 각종 소득세 부담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의 을 소득세 부담은 본 계약 해지 이후에도 유효하다.”

7. 무한경쟁... 인간관계도 맷지 말라

서울 강남구에만 366곳. 성형외과 병원 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력 유출 혹은 경쟁 병원 증가에 대한 고민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는 근로계약서에 희한한 조항으로 나타났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는 갑이 채용하거나 하였던 모든 직원과 개인적인 모임 회합 회식 등을 가질 수 없으며 을이 본 항을 위반할 시 갑은 이에 상응하는 문책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혹여라도 경쟁자가 될 수 있으니, 만에 하나 직원들까지 빼내서 바로 옆에 병원을 낼 수 있으니 사적인 관계도 맷지 말라, 밥도 함께 먹지 말라는 요구다.

성형외과는 이렇게 괴물이 되어갔다. KBS의 이번 취재로 괴물의 뇌구조가 일부 드러났다. 해법은 분명하다. 의료법 위반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책임 있는 자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제도가 미비해서 처벌조차 할 수 없다면 이번 기회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

성형외과 의사회가 대국민사과와 함께 자정 선언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전문가로서 자존심을 걸고 선언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정부나 국가가, 필요하다면 언론이 과정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 성형 자체가 고도로 영리화된 마당에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이, 지하철과 버스가 성형 광고로 도배되고 텔레비전에 성형으로 인생을 바꿔주겠다는 어이없는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이상한 나라'에서 벗어날, 정상 사회로 갈,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성형수술 안전성 확보 및 성형광고 성형산업 규제방안

박영진(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

1. 성형수술 안전성 확보

1) 성형수술은 상품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형수술은 고도의 의료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 환자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여 상담되어 신중히 진행되어야 하는 수술입니다.

매출의 극대화를 위하여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의료정책에 의사가 소외되면 의료계가 갈 바를 모르고 경제논리에 휘둘려 해매게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결정권을 잃게 되면 환자는 상품화되고, 의술은 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의술은 인술이 되어야 합니다.

2) 성형수술은 환자마다 개별화 되고 그 개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성형수술은 환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추어 최선으로 선택되고 수술되어야 합니다.

매출의 증대만을 위한 수술의 단순화, 단시간화는 이제껏 세계의 최상수준으로 발돋움하는 한국성형외과의사들의 위상을 하향평준화 하여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한 진료를 기반으로 한 수술치료계획과 신뢰가 바탕이 된 수술진행과 수술 후 치료가 이루어져야 환자는 비로서 수술한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고,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예뻐지는 것 보다 환자가 의사를 믿고, 환자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의사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3) 환자 한명 한명에게 인격과 개성을 존중한 차별적인 수술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인성 쌍둥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환자는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개성을 존중받고, 자신의 상황과 바라는 정도에 맞는 적당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다양한 성형외과의사들의 의견 속에 자연스럽게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우리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여 처절한 자기반성과 통찰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해당병원의 원장도 한때는 또 다른 성형외과의 봉직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업하였을 때 배운 것에 자신의 철학을 결합시킨 운영방침을 세웠을 것입니다. 워낙 위법한 사실들이 많아 너무 놀랍고 황당하기조차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의 총집합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지 않고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게 단지 해당성형외과 단 한군데의 대표원장만의 문제, 소속 일부 충성 봉직의사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한 것 이상으로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잘못된 관행들은 바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5) 아름다운 성형문화의 창출

결국 우리가 어떠한 행태로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들은 돌볼 것인가 하는 것은 총체적인 하나의 문화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적인 성형외과의 문화를 합법적이면서도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형외과로 바꾸어나가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잘못된 구습들은 과감히 지적하고 버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자라는 실력을 마케팅으로 덮어서 병원이름을 브랜드화하고, 덤핑을 통해 환자몰이를 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만의 개성과 특성을 가지고 환자들에게 존중받는 그런 성형외과,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성형외과 의사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형문화를 만들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 방안

1) 수술방 안전시설 및 장치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요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수술방에서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시설물 설비(제반 모니터 및 안전장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사고의 예방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상당수의 의료사고는 확률적으로 역설적으로 마취통증의학전문이 있는 대형 성형외과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것은 대형성형외과의 마케팅의 결과일 뿐입니다.

2) 수술전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건강상태 파악 의무화

대한 성형외과의사회에서 수술전 환자에게 행해야 할 사전 환자의 건강상태 검사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 수술에 참여하거나 수술의 일부를 다른 의사가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고지되고 동의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상담하고 수술하기로 약속한 의사가 아닌 다른 유령의사가 또는 대리수술의사가 집도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수술중 조수가 함께 하는 경우 또는 수술

의 일부를 다른 의사가 함께 도와주는 경우는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서면으로 통지되고 동의를 득한후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재는 동의하지 않은 대리의사가 수술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보강이 되도록 입법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의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대리수술의사가 심지어 비 전문가가 있다는 얘기는 국민들에게 경악스러움을 주기도 하는데,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환자가 자기를 진료하는 의사가 무슨과 의사인지를 정확히 알려줄수 있는

전문의 실명제를 진료의사실명제(대리수술금지를 위해)와 함께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 하겠습니다.

4) 의료기록물에 대한 표준기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상담차트, 수술기록지, 수술동의서, 환자의 치료기록지등이 출신 병원들에 따라 또는 의사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제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이를 표준화한 기준안을 제시하여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의료행위 자체는 정도를 걸을수 있고, 추후 법적분쟁시 소중하고 정확한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5) 윤리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대생 교육과정에 윤리교육이 강화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형외과 수련의 과정에서 반드시 철저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화하겠습니다. 성형외과전문의 자격증을 따기전에 윤리교육을 받고 서명한 의사만이 전문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기존의 성형외과전문의들에게도 윤리교육을 받은 의사들만이 진료현장에 뛰어 들수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형진료를 하는 모든분들에게도 대한성형외과학회에 함께 지침을 만들어 윤리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성형광고 및 성형산업 합리적 규제

1) 외국인 성형/피부 의료관광객 불법 브로커 문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외국인 부가세를 환급하여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ㄴ) 국가의 경제규모가 오히려 더 커집니다.

ㄷ) 투명한 수술비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불법 브로커 또는 에이전씨가 발붙일 곳이 없어집니다.

ㄹ) 국가재정을 위한 세수가 확대됩니다.

ㄱ) 공항에서 돌려받는 부가세 그 맛은 정말 짹짹합니다. 한국에서 성형수술 받으면 부가세 돌려받는 맛에 외국인 환자들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ㄴ) 그 부가세 되돌려 받으면 어디에 쓸까요?

마치 공돈이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가세 받아놓고, 공항에서 다시 되돌려 받으면 그 돈 도로 들고 갈까요? 아니오 내친김에 모두 면세점에서 다 쓰고 가기 마련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득입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ㄷ) 투명한 수술비의 공개가 이루어 집니다.

부가세는 수술비의 10%입니다. 또는 자기가 지급한 돈의 1/11입니다.

환자가 부가세 환급액을 받게되면 자신이 지불한 수술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즉, 부가세의 환급은 투명한 매출공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투명한 수술비의 공개는 결국 불량한 불법 에이전씨들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선량하고 정상적인 허가받은 에이전씨들이 정상적인 시장을 키워갈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당장은 불법 에이전씨들의 운신폭이 없어지므로 성형외과의 매출은 특히 대중국인 의존도가 높은 대형성형외과의 매출은 급락 할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

로 보면 슈퍼갑으로 횡포를 부리는 불법 에이전시들이 사라지게 되고 정상적인 시장의 질서가 잡혀가고 성장할 것입니다.

ㄹ) 부가세를 돌려주면 당장 국고는 줄어들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니올시다.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지하 경제가 양지로 우뚝 솟아 오르면서 세수의 확대가 이루어 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형성형외과의 50~70% 가까운 외국인 환자로 인한 수입에 대한 투명한 세원의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규제안

ㄱ) 공공장소 등에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하여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별첨 참조 바랍니다.

별첨 1.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성형실태파악 현황과 의견

1. 광고 현황

오프라인: 버스, 지하철, 영화관, 기타 공공장소 특히 음성광고의 공해 유발행위

TV: 렛미인류의 성형조장 프로그램, 예능프로그램의 성형유발행위, 기타 프로그램상의 PPL

잡지, 신문, 안내지등의 다양한 책, 홍보물

온라인: 포털(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등), 각종 온라인 신문및 모든 온라인 매체는 수익모델

모바일: 안드로이드, 아이폰등등

->너무나 다양한 광고수단의 상존

2. 성형외과 광고의 문제점

ㄱ. 지속적인 노출로 성형수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상품화: 아직 인격형성이 확실히 되지 않은 사춘기의 학생들도 성형수술로 신분상승을 기대하거나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상품정도로 생각한다. 심지어는 갓 입학한 중학생의 꿈이 나중에 성형수술 하여 연예인누구처럼 되겠다고 하는 정도로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자 정도로 여기고 있다.

ㄴ. 중독성이 생기는 반복적 노출: 한번 수술한 사람은 성공하던 실패하던 재수술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정신병적인 문제도 생기는 경우도 있다.

ㄷ.유인, 알선행위를 통한 의료법 위반: 가장 심각한 국민 건강권의 침해 문제. 중국에서도 과거에는 스파, 미용실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관습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으로 점점 없어지는 추세이나 한국에서는 인터넷 발달과 더불어 카페, 파워블로거, 등등을 통해서 유인, 알선행위가 만연한 상태, 이런 형태의 알선이 없으면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ㄹ. 불법 성형대출은 성형대출을 2,3금융권에서 해주면서 환자 알선의 대가로 병원 측에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지난해 강남서 에서 수사하였으나 그 이후의 법 집행 상황에 대한 결과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성형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가 이중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대출해준자는 합법적 이자 소득과 음성적 리베이트를 동시에 챙기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성형대출은 선진국에서는 투명한 형태로 유지되기에 큰 문제없이 선진국 일수록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이기에 차라리 양성화 방안도 고려해 볼직하다.

ㄹ. 성형외과 영역에 너무 많은 의사가 집중되어 환자유발효과가 배가된다. 의료 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배출된 타과 전문의가 자기영역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수익구조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대안으로는 적정한 의료 보험급여로 각 분야 전문가 영역이탈을 최소화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전문의 실명제(일명 진료의사 실명제)**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가 단순히 전문의 흉길동으로 한다면 산부인과, 내과 전문의도 병원내부를 성형외과나 피부과로 꾸미고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모순이 있다. 또 다른 예로 한명의 전문의가 000성형외과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다수의 비성형외과전문이나 일반의사를 고용하면 고용된 의사는 000성형외과소속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생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기타 어떤 나라도 본인의 전문과목을 알리고 진료할 의무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강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ㄹ. 선진국의 의료 광고는 대부분 수술전후 사진보다는 이미지 광고가 대부분인데 이는 당연히 이유가 있다. 의료의산업화라는 명제에 집착하여 광고시장을 대규모로 풀어 주었는데 생기는 부작용이 성형수술사고로 이어지고 그 이유가 됨. 이미 전문가단체에서는 예견된 부작용으로 보았고 이번 G 병원사고의 원 초적 단초를 제공했다고 여기고 있음. 심지어는 돈으로 인터넷을 장악하여 광고 및 여론을 특정병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 이슈가 되는 부분을 희석해 버리는 정도로 그 광고기법이 일반적인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대안으로는 선진국처럼 성형외과 학회, 관련단체에서의 강의나 발표는 적극적으로 광고에 활용하게끔 하는 건설적인 광고로 가고 사진조작이나 과대광고 등에는 3진 아웃 제를 적용하여 2회에는 6개월 정도 광고 정지, 3회에는 1-3년

정지등의 실효성 있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술 광고에는 연예인을 모델로 못쓰게 하고 있는데 더 위험한 성형수술에 연예인을 쓰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고 더 큰 성형유발 행위이기에 이런 부분은 특히 제한이 가해 져야 한다고 본다.

또 성형수술부작용이 발생하고도 버젓이 버스, 인터넷에 광고를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행위 임에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 광고 수익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허용한다는 것은 이미 성형을 의료가 아닌 상품으로 보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하다. 이때 시민 단체 등에서 직접 매체에다 요청하기도 해야겠지만 성형외과 의사회에 요청하여 서로 공조하여 협조를 요청한다면 명분과 함께 향후 광고시장의 건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광고를 무조건 제한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공공장소(지하철, 버스, 영화관, 기타 건물, 지하도 등등 누구나 인정하는 장소)에서의 성형 광고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피해야 하고 온라인 광고도 음성적인 광고를 규제해야만 건전한 성형의료문화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인터넷은 물리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곳이지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 단체(의사회)의 도움을 얻는다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된다.

스. 무분별 광고 대안은 매추대비 광고비의 세무인정비율, 광고파라치, 불법광고시의 광고불허제재등 여러 가지 있을수 있으나 이를 피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난무하는 풍선효과가 예측되기에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세무담당자, 의사회, 정부등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다발하는 성형외과 사고

ㄱ. 실제 문제가 되는 성형사고의 대부분은 비전문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다만 성형외과전문의 병원이 항상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성형외과전문의도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라는 언론의 노출, 주목을 위한 상업적 이유로 보인다. 최근 부산에서 양악 수술하다가 사고가난 경우도 치과, 3월에 코 수술, 지방 흡입하다가 생긴 문제도 비전문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욕을 먹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적극적인 의사회의 노력이 있어도 시민 단체 등에서 이를 비전문의의 성형사고로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병원 내에 환자관리장전, 비보험급여안내는 보건소등을 통해 강제하면서 정작

진료 받는 환자입장에서는 진료를 하는 의사가 무슨 전공을 한 전문의인지도 알길 이 없게끔 하는 정부는 단순히 간판만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탁상공론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심지어는 일반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하는 현상도 우리나라에만 있는데 이는 국가나 국회가 국민의 보건을 위한 기관 이 아니고 각각의 이익구조를 위해 있다고 여길 만큼 방기한 현실이다. 국가 가 전문의 제도를 포기한 것으로 봐도 될듯하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산 업화라는 명제에만 머물러 의료라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ㄴ. G 병원에서 생긴 눈, 코 수술을 하다가 생긴 여고생 뇌사사건(의식불명)은 집도의의 잘못도 있겠지만 성형외과 의사회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관리자 의 잘못이 다수 확인된 대형병원의 모든 문제점을 노출시킨 사고로 판명되었다. 즉 어떠한 최신 시설도 관리자의 의지가 상업적인 금전적인 이득만 원한다면 장비나 시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교훈이었다.

4. 성형산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ㄱ. 기본적인 안전 장비는 현재 대부분의 성형외과는 갖추거나 갖추 예정이다. 비전문 의 병원의 안전성 미비가 더 큰 문제로 여겨진다. 현장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자나 관리자의 마인드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여겨짐. 안전장 비가 있어도 위치나 사용법을 모르는 직원, 의사가 많기에 이런 문제 해결이 더 크다고 느껴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G 성형외과 병원에서는 최신 시설을 갖추었으나 위치, 사용법을 몰라서 생긴 일로 확인되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자 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대안으로는 성형외과 의사배출시에 윤리교육 이수자에 한해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주고(전문가 집단만이 내부의 문제를 제일 잘 알고 있음) 현재 개원이 나 근무하는 성형외과의사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윤리교육확인서가 있어야 업 무를 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ㄴ. 마취과의사의 상주문제

마취과가 아무리 많아도 관리자의 자세나 교육수준이 안전을 중요시하지 않고 돈만 생각한다면 무용지물, 문제가 되었던 G병원도 마취과의사가 많이 있었지

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마취과 상주라는 명제에 집착하기는 현실적인 무리가 있다. 사실 마취과 상주는 대형병원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마케팅의 일부이다. 결국 성형을 의료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ㄷ. 비의료인의 상담: 코디네이터, 실장이라는 직급으로 상담을 하면 환자의 건강이나 문제를 보고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력, 위치를 보고 돈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때 컴플레인을 피할 수 있느냐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또 인센티브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환자를 환자로 보지 않고 고객이라는 상품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의사가 상담하기 꺼끄러운 부분을 도와 준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인센티브 등에 목을 걸기에 무리한 전문가의 견해를 무시한 진료행위가 되어버린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절대 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은 의료적인 상담을 상담코디네이터가 해서 의사에게 수술을 결정하는 행위는 환자의 목숨도 뺏어 갈수 있는 행위로 복지부에서도 불법으로 간주하여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강한 법적 책임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의사에게만 설명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상담코디네이터의 월권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할 것으로 본다. 의료사고로 알려져서 소비원등에서 조정하는 상담부분은 의료지식이 부족한 상담코디네이터의 무리한 실적 경쟁에 의한 주관적 불만족이 다수 차지한다. 성형수술의 특성상 이런 주관적 불만족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의 상담이 필수적이라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광고를 허용하고 접근성이 높아지다 보니 성형수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지만 환자들도 특별히 부작용 없는 경우도 클레임을 걸어 심리적 투사나 심적 보상을 원하는 사회갈등의 요소가 된다는 점도 알려졌으면 한다.

ㄹ. 하루 집도 건수는 간단한 수술(보톡스, 필러등등)은 거의 숫자를 정하기 힘들지만 간단하다고 하는 눈 수술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과정을 거친다면 수십 개씩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수익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동의 받지 않은 유령의사가 대리 수술하는 쉐도우 닥터라는 말이 나온다. 이 쉐도우 닥터는 상담한 의사가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서는 수술실에서는 유령의사가 동의도 받지 않고서 수술을 해버리는 반인륜적 반윤리적 범죄행위로 의사회에서 보고 고발 예정이다.

심지어는 한 의사가 하루 100명 이상의 수술을 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는 환자를 기망하기 위한 쉐도우 닥터를 쓰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성형외과 의사 중에서도 수술은 잘 하지만 상담이 떨어지는 경우 등은 협진이나 동의를 받고서 수술을 하면 환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스타의사를 내세운 마케팅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러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 즉, 많은 다수의 병원이 대형화라는 목표에만 함몰되어 대리수술을 거의 관행처럼 해오다가 최근 여고생 뇌사 사건을 계기로 제동이 걸렸다. 환자를 기망하기 위해서는 수술 중에 끊임없이 재우기 위해서 수면마취제를 과다 사용해야하는 또 다른 반인륜적 행위를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 버린 것이다. 적정 수술건수는 의사 개개인의 능력이나 수술의 종류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술건수를 객관화 하기는 힘들다. 무분별한 광고로 과당경쟁이 되어버려 성형수술비가 내려간 상황이라 대부분의 성형외과는 수술을 많이 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가 되고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덤핑이라는 질을 무시한 진료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 버림. 결국 광고제한완화 → 무분별한 성형 수요 유발 → 비전문의의 대량 성형계에 유입과 과당 경쟁 → 질을 무시한 덤핑 → 다수의 환자 확보해야만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 → 쉐도우닥터를 통해 무리한 수술을 해야만 함 → 계속된 광고 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의료사고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대한민국 성형외과의 현실이다.

㉔. 해외환자유치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는 유치자의 과다한 수수료. 이는 머지않은 장래에 외교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단순히 바가지 씌우는 일이라 개인 간의 거래로 생각한다면 큰 착오이다.

과거 의료관광이라는 명목 하에 해외환자알선이 허용될 때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했는데 정부의 무관심으로 그냥 시장에 맡기다 보니 현재 거의 시궁창 수준이다. 수수료 많이 주는 병원으로 주로 환자를 데려가기에 의료의 퀄리티와는 무관한 전형적인 상행위와 같이 되 버렸다.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 상인들이 꼬이는 이치와 같다. 성형외과학회나 의사회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저명하고 수술 잘하고 학문적인 의사들에게 의외로 환자가 없고 유치업자의 비위에 잘 맞추는 원장들에게 환자가 물리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요? 즉, 일정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업자를 고발하여 엄벌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

는데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대형 성형외과는 크기와 화려함으로 무장하여 해외환자가 많이 찾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대부분 대리수술의 사로 꾸려져 있는 것이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에서 나왔기에 대리의사를 쓰지 않는 병원으로의 유도가 의료관광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성형외과의 규모경쟁이 아니고 질의 경쟁이 되어 국민과 의료관관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의료진의 해외 진출

검증된 전문가를 해외에 진출시켜 인 바운드 의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해외로 의료인 수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시대적 상황이다. 현재 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공조하여 성형외과전문의실명제를 전제로 해외진출의사의 자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가장 신경써야할 부분은 검증된 의료인의 수출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료수출에만 혈안이 되어 검증절차를 무시할때는 또 다른 비극이 예고될 수밖에 없다.

중국 등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저질러진 무리한 성형수술로 일부에서는 한국성의 우수성을 망쳐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하고 검증된 전문의를 수출하여 외화획득에도 이바지하려고 한다. 현재 중국에서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 성형수술을 할 수 없게끔 행위면허자체가 나오지 않고 있다. 즉, 전문의가 아닌지가 중국에 건너가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다. 중국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원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상은 대한성형외과 진상조사위원회와 상임이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2014. 4.10

별첨 2. 사례



-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아예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기망하는 행위



- 성형외과 전문의는 한명도 없으면서 성형외과 000지점 원장 등으로 환자 기망행위

언론이 인정한

성형외과

2013 연합신보(국회 시상) / 大韓民國 전문의료인 부문 大賞
 2012 위클리 피플 / 성형외과의사최초 표지인물선정
 大韓民國 新지식인 부문 大賞
 2012 뉴스메이커 / 혁신리더상(성형외과 부문) 선정
 2012 일간스포츠 / 의료혁신 BRAND 大賞
 2012 스포츠동아 / 의료 BRAND 大賞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라클 성형외과
 Miracle Network
 한국어 & english
[GO HOME](#)


 直接浏览 MIRACLE
 整形外科医院的官方网站
 中國語
[GO HOME](#)


 Allez sur le site web de
 "MIRACLE"
 chirurgie esthétique
 france
[GO HOME](#)

- 성형외과 비전문의를 국회에서 버젓이 성형외과 전문의처럼 시상한 행위



원장

- 서울의대출업
- 전문의
- 대한미용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학회 정회원
-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원장

-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KOSSO :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vesity)
- 국제지방성형외과학회(IUL)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학회(IBCS)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The Korean Academy of Cosmetic Surgery)

- 과연 여기서 김모원장이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있겠습니까?

상기 내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캡처 한 내용입니다.

별첨 3.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기자회견문

최근 성형수술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사고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성형사고·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국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 최근의 사태는 날로 심해지는 의료기관 간의 과다 경쟁과 상업화로 인한 일부 회원들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에 무한한 책임과 함께 참담한 심정을 느낍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일부 의료기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음으로써 정상적인 의료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등과 공조하여 기존 전문의 뿐 아니라 향후 배출되는 전문의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불법 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의료기관을 관계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강력히 정화해 나갈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 드립니다.

지금까지 확인 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법행위들이 일부 병원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째, 유명의사에 의한 대리수술 (쉐도우닥터) 문제입니다.

병의원 들은 각종 광고를 통해 이른바 ‘유명의사’를 만들어 환자에게 그 의사가 수술할 것처럼 상담을 하지만, 실상은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투여하여 잠을 재우거나 전신마취 후, 대리수술을 하는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입

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비윤리적 의료행위입니다. 심지어 성형외과전문 의사가 아닌 의사가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들조차 '대리수술의사(쉐도우닥터)'의 존재를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둘째, 대량의 수면마취제 투여를 위해 마취제 유통에서부터 의사면허대여까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의사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속이기 위해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투여하게 되고, 대량의 수면마취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계속해서 개설하고,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면허대여자를 바꿔가며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근무조건과 과도한 근로시간을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에게 강요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격무에 시달린 직원이 퇴직하면, 자격증이 없는 간호조무사 학생들이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병의원과 의사들에 대해 회원제명, 회원자격정지 등의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상기 문제점 뿐 아니라 다수의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도 불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 공공장소 등에서의 무분별한 과대광고로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 성형 관련 광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수립하여 국회 입법 추진을 시행하겠습니다.
-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동의 없이, 상담한 의사와 수술한 의사가 바뀌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성형수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료기관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은 고도의 집중력과 높은 수준의 의학지식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성형수술을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 정도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으며, 여기에 편승하여 일부 부도덕한 의사들이 상업적으로만 접근하는 현상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수술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잘못된 의료윤리관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사건들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성형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성형문화와 올바른 의료환경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0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회원 일동

성형수술 후 사망사건 관련 국회정책간담회 토론문

구홍모(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임조사관)

□ 성형수술

- 성형수술이란 사전적 의미로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인체의 변형이나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회복시키는 수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성형수술은 크게 상해 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인체의 변형을 교정하는 재건수술과 미관상 보기 흉한 신체의 부분을 교정하는 미용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미용성형수술의 문제점

○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

- 일반적으로 재건성형수술은 난도가 높고 재건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환자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및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지만, 미용수술의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사는 미용성형수술 전 수술에 대한 위험 및 부작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경우 환자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대략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 결국 미용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의 악결과는 이러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미용성형수술의 주관적 기준

- 미용성형수술은 사전적 의미로 흉한 신체의 부분을 외과적으로 교정·회복시키는 수술입니다. 여기에서 ‘흉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 환자 자신의 신체 일부에 대한 미용상 불만이 있는 경우 수술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술과는 달리 수술 기준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필요한 미용성형수술 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수술 부작용 건수도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미용성형수술의 시기적 쏠림 현상

-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외관상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수술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은 보통 방학이나 휴가철 등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 시기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므로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수술하게 되는 등 서두르게 되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 미용성형수술의 과대·과장 광고

- 안전하고 간단하며 신속한 회복 등을 내세워 홍보를 하게 되는 미용성형수술의 특성상 수술에 따른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부풀린 효과와 결과에 대한 과대·과장 광고는 환자로 하여금 선택을 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 미용성형수술의 상담

- 개인병원의 경우 미용성형수술의 상담과 수술 선택이 일명 ‘코디네이터’ 또는 ‘실장’이라는 의사가 아닌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성형외과만이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시

시스템이지만 특히 성형외과에서는 보편화된 시스템입니다. 의사가 아닌 직원에 의한 상담과 수술 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술을 받아도 되는 상태인지, 수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술 중이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환자가 가진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법률적으로 설명의무위반인 것입니다.

○ 미용성형수술 과정

- 'Shadow doctor'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림자의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자의사는 환자와 상담을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그 수술 의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미용성형수술도 신체부위에 따른 수술방법에 차이가 있고 난이도 차이도 있어 한 의사가 모든 수술을 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의료적으로 더 큰 문제는 그림자의사의 경우 환자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과거력, 기왕력 등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수술 후 회복 과정의 처치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중 소견에 따른 치료가 반영이 되지 않아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미용성형수술 마취 및 회복 과정

- 개인의원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가 고용되어 상주를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수술을 하는 타 진료과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느 정도 수술 건수가 지속이 되지 않는 경우 마취과 전문의 고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대신 외부에

서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 마취를 하게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큰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관내삽관을 통한 전신마취, 척추마취, 경막외마취 보다는 국소마취 및 정맥마취를 선호하게 됩니다. 국소마취 및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 프로포폴, 케타민, 미다졸람 등의 마취제를 정맥주사 하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 없이 성형외과 의사 본인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은 올바른 정맥마취 방법, 마취동안 주의사항,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들에 대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아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외부에서 마취과 전문의를 불러서 마취를 하는 경우 보통 마취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다른 병원으로 마취를 하러 가야 하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마취 전 유도시간 및 수술 후 회복시간을 짧게 하려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 미용성형수술 후 회복 관리

- 미용성형수술의 경우 환자들도 수술 후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를 원하게 되고 의사들도 병원 운영상 입원치료에 따른 입원실 등의 시설과 당직 인력 고용에 따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회복실에서 지켜본 후 퇴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회복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 미용성형수술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 성형외과학회의 권한 강화

- 학회 주도로 무분별한 미용성형수술 자정 노력을 하는 동시에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 관리 권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성형수술을 난이도에 따른 분류와 각 분류에 따른 기준 수술실적에 따라 허

용 가능한 수술 범위 설정하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비전문 의사도 미용성형수술을 하는 현실에서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의료를 바탕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학회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 2009년 대한성형외과 학술대회총회 '성형외과 환자 안전선언'

"성형수술의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기이며, 성형수술 후 예기치 않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성형외과 회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일반인이나 성형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형수술 환자안전 선언을 하게 되었다."

○ 최근 성형외과학회원 공지사항

존경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회원 여러분!

갈수록 어려워 가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퇴올 말씀은 작년부터 노골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성형외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이은 사건들 때문에 현재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성형외과학회 차원에서 모든 회원님들과 다시 한 번 뜻을 모으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최근에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논란이 되는 여러 문제들은 크게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과 의료 윤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여론의 질타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방치된다면 성형외과

전체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단체로 낙인이 찍히고, 우리 스스로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외부의 기준으로 우리의 행위가 좌지우지 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극히 일부의 성형외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으나, 오늘은 우리 모두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자부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자체 정화가 이루어 지어야 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은 성형외과 전문의사이기 이전에 의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을 때를 떠올려보시고, 기본적인 의료 윤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 할 것인지, 나를 찾아온 환자의 안전을 내가 어떻게 지켜 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이미 2009년에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성형수술결과를 얻기 위하여 환자안전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환자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하는 선언문을 공표하였고, 환자의 안전관리 지표, 수술준비 양식, 수술 전 환자평가표 등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성형 수술 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이 사회적 논란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은 전문적인 성형외과 수련을 받지 못한 비전문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성형외과 전문의에 의한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이므로, 환자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제반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십시오. 수술환자 확인, 환자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올바른 수술부위 확인, 감염예방, 환자의 사생활보호, 수술동의서 작성, 통증관리, 마취와 진정, 응급소생술, 진료환경의 안전과 재난대비, 의무기록, 올바른 약물투여와 약제관리 등의 기본 진료 내용들에 충실해 주십시오. 특히,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의 사용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술 중, 술 후 환자의 모니터링을 철저히 확인해 주십시오. Pulse Oxymeter를 포함한 수혈, 마취 및 CPR 기구 등 환자 모니터링 및 응급 기구들은 반드시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수 년 내에 병원 규모에 따른 개인성형외과 병원 수술실

도 인증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학회도 이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이에 맞추어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일부 대형 개인 성형외과 병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도우닥터, 상담 실장에 의한 진단 및 수술 결정, 페이스닥터 고용 불평등 사안 등 의사로서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의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사안임은 분명하나, 이는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과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와 의논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직접 수술하여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는 스스로를 전문가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외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보호 받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러한 비합법적, 비윤리적 진료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자 합니다.**

3. 일부 대형개인성형외과의원에서 성형외과 광고가 지나쳐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영화관에서 일부 병원의 지나친 광고에 대하여 지나치게 외모 지상주의를 가중시켜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화관에서의 광고를 중단시켜 달라는 주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버스 및 지하철 성형외과 광고 등에서 환자 초상권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법적인 과대 광고를 자제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4. 국내외 환자 유치와 관련해서 **불법적인 브로커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아직도 소위 **사무장 병원**과 연관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원정 성형의 경우 중국 내 여론추이가 호의적이지만 않습니다. 한류성형의 트렌드를 만들어낸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더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불법적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중국 원정성형 관련하여,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보시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 **합법적인 국내**

외 환자 유치활동은 학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제도화를 노력하고 있으나, 불법적인 국내외 환자 유치 활동은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서 엄격하게 제재하겠습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 대내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학회가 앞장서서 이러한 활동을 이끌어 나갈 것이나, 이러한 대한성형외과학회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의 노력에 모든 회원님들의 협조와 격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격려와 질책을 기대하겠습니다.

2014. 3. 24.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참고

- **의료사고감정단 성형외과 감정위원**
- **의료사고감정단 성형외과 자문의원**

보건복지부 토론회

양윤석(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

